

사계절 무한대의 활상목업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점도 완공
- (명절특별행) 10월 18일 10시 개장
- 무척시 9월 이후 특별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ne.com 0801-320-7700

신지애 출신원 '폭풍 샷' 단독선두

KLPGA 하이트컵 챔피언십 2R ... 안선주 1타차로 제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하이트컵 챔피언십에 출전한 신지애(20·하이마트)가 16번홀(파3)에서 티샷, 핀을 향하던 볼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후 터져나온 갤러리들의 환호성, 홀컵에 곧바로 빨려들어간 신지에 가까운 출신원이었다.

3년 연속 상금왕을 노리는 신지애는 17일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골프장(파72, 6천410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프로데뷔 이후 국내에서 두번째 출신원을 기록한 데 합입어 5언더파 67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이틀 동안 9언더파 135타를 친 신지애는 안선주(21·하이마트)를 1타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라서며 우승컵에 바짝 다가섰다.

선두였던 안선주에 1타 뒤진 2위로 출발한 신지애는 14번홀까지 버디 4개를 골라내며 1위로 치고 나가다 15번홀(파4)에서 이번 대회 첫 보기를 기록했다. 먼저 경기를 끝낸 강수연이 6타를 줄이며 공동 선두로 올라선 상황에서 신지애는 파3, 156야드짜리 16번홀에 캐디 딘 허튼이 "출신원 한번 하자"며 건네준 8번 아이언을 들고 나왔다.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날아간 볼은 그린 위에 떨어지지도 않고 곧바로 홀 속에 꽂혔다. 볼이 워낙 강력하게 꽂히는 바람에 홀 모서리가 무너졌다. 마치 농구 선수가 링을 부숴버릴 듯이 꽂아넣는 슬랩샷 같았다. 신지애는 이 홀에 걸려있던 4천180만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는 행운도 함께 누렸다. 안선주가 보기 없이 3타를 줄여 신지애에 1타차로 바짝 따라붙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강수연(32·하이마트)도 7언더파 137타를 치며 3위에 올라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짜릿한 출신원 17일 여주 블루헤런골프장에서 열린 제9회 하이트컵 여자프로골프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신지애가 16번홀에서 출신원을 성공시킨 뒤 홀컵에서 공을 들여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KLPGA 제공)

'2008 그랑프리 육상대회'

광주서 20~22일 개최

광주시는 광주체육경기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20일~22일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08 그랑프리 육상대회'를 개최한다. 각 종목에서 최상의 기량을 보인 8명씩만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그랑프리 육상경기 대회로, 모두 21개 종목(남자 10개, 여자 11개 종목)이 치러진다.

제89회 전국체전 육상 멀리뛰기에서 21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세운 김덕현(광주시청 소속) 선수도 출전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U-16 청소년축구 대표팀

6년만에 정상탈환 나선다

오늘 이란과 결승전

한국의 16세 이하(U-16) 청소년축구대표팀이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선수권대회에서 6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선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U-16 대표팀은 18일 오후 8시 중동의 강호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파르타코르 스타디움에서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한국 청소년축구대표팀은 지난 2002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회 이후 6년 만에 결승에 올라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노린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FC U-16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1986년과 2002년 두 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2004년과 2006년에는 8강에 머물렀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막강한 공격력과 빠른 공수 전환을 자랑하며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였다.

B조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무려 15골을 터뜨렸던 한국은 8강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3-0으로 완파했고, 준결승에서도 지난 대회 챔피언 일본에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선발 못믿어"... 불펜 총동원 '물량공세'

'마운드 전략'이 2008 플레이오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맞붙는 플레이오프는 예상대로 불펜 대결양상을 보이며 '물량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플레이오프 1차전이 펼쳐진 지난 16일 두산과 삼성은 에이스 김선우와 배영수를 내세워 초반 기선 싸움을 벌였다.

결과는 두산의 8-4 짜릿한 역전승. 이날 경기 향방을 좌우한 것은 역시 불펜이었다.

두산은 김선우가 4실점으로 2이닝 만에 무너져 내리자 곧바로 이혜천을 투입했다. 그리고 5회 김경문 감독은 마무리 정재훈을 마운드에 올리는 승부수를 띄웠다. 3회 대거 4점을 뺏았던 삼성은 이혜천-정재훈-이재우에 이어지는 두산의 불펜 계투조에 봉쇄당하며 추가 득점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김경문 감독은 "정재훈을 조기에 투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 게 효과를 봤다"고 자평했고, 패장 선동열 감독은 "추가득점에 실패하는 등 한마디로 불펜싸움에서 졌다"고 밝혔다.

두산은 이날 승리로 역대 포스트시즌 특징팀 상대 최다 연패(8연패) 타이 기록 위기에서 탈출했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올 시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두산-삼성 '마운드 전략'

두산, 이혜천-정재훈-이재우 '불펜 트리오'기대

삼성, 오승환·정현욱·권혁·안지민 '짚물 투구'로

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선발 투수의 부재로 포스트 시즌에서도 힘든 행군이 예상된다.

삼성의 고민도 비슷하다. 롯데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도 선발 투수 중 배영수 홀로 5이닝을 막는데 그치며 불펜 힘에 의존했던 삼성이다.

양팀의 '물량공세'는 플레이오프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양팀의 불펜진 과부하는 볼 보듯 뻘뻘하다. 불펜의 활약 여부에 따라 한국시리즈 티켓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어느 팀이 승자가 되든 고민은 또 있다. 한국시리즈에서 만나게 될 SK 와이번스는 괴물 김광현이 버티고 있고, 불펜 전력도 어느 팀에 뒤지지 않는다. 두산과 삼성은 플레이오프에서 승수 쌓기와 마운드 에너지 소모 최소화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의 JD 드루시(시진 오른쪽)가 17일(한국시각)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5차전에서 9회 끝내기 안타를 때려 낸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체전 이후 광주·전남 과제

광주, 초등 우수 선수 육성 시급

전남, 대학부 취약 종목 보강을

지난 16일 끝난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는 20년 만에 가장 좋은 점수(개최지 가산점을 받은 제88회 광주 대회 제외)를 획득했다. 하지만 목표했던 종합 13위에는 미치지 못한 채 종합 14위에 그쳤다. 개최지 전남은 종합 3위를 달성하는 기쁨을 누렸다.

광주는 육상을 비롯한 기록종목들이 눈에 띄게 향상됐지만 순위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전남은 전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고등부가 3위의 패거리를 이루는 등 전반적인 전력 향상을 이뤘다.

◇광주=카누, 수중, 세팍타크로 등 39개 종목에 출전한 광주는 종합점수 3만1천740점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으나 당초 목표인 종합 13위 달성에는 실패했다. 특히 경쟁 상대인 대전에 396점차로 뒤지면서 종합 13위를 내줘 아쉬움이 더 컸다.

하지만 광주는 김덕현(광주시청)이 육상 멀리뛰기에서 21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고, 박은경(광주체고)이 체조 여고부에서 5관왕에 오르는 등 기록면에서 질적 향상을 이뤘다.

유형별로는 육상, 수영 등 기록종목에서 두드러진 향상을 보여 전체 점수의 59%인 1만8천826점을 획득, 득점을 주도했다. 하지만 조선대, 호남대, 광산구청(태권도), 남구청(레슬링) 등 대학과 각종 운동부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광주가 종합 13위 달성에 실패한 요인으로는 최소 동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했던 축구 남고부와 대학부가 초반 탈락, '0'점을 기록하며 손실된 점수를 막 관까지 극복하지 못했다.

또 하자종목으로 꼽혔던 양궁과 지난 해 4종별을 석권하며 체전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던 여자 일반부 불림팀이 동메달 1개로 부진해 순위 하락을 부채질했다.

이외에 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근대5종 부진도 광주의 발목을 잡았다. 역시 지난해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를 석권하며 기적이 가까운 실적을 올렸던 검도도 아쉬움을 남겼고, 씨름과 하기도 전력하강세를 면치 못했다.

또한 대전시가 2009년 체전 개최를 위해 우수선수 영입 및 팀 창단을 한 것도 광주의 순위 하락에 일조했다. 하지

만 지난 베이징올림픽에서 20년만에 올림픽 자력 진출을 일군 최준상이 승마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승마와 체조, 펜싱, 요트, 우수, 정구는 선전을 펼쳤다.

광주의 하위권 탈출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상적향상을 이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전남=개최지 전남은 경북과 마찬가지로 막 날까지 숨겨온 종합 3위 싸움을 벌였으나 추격을 뿌리치고 종합 3위를 달성하는 목표를 보였

다. 전남의 종합 3위 달성에겐 검도와 태권도, 공도가 1위를 달성하며 힘을 실었고 유도, 씨름, 럭비, 골프, 농구, 탁구의 선전도 눈에 띄었다. 또 정구와 배구, 근대5종은 3위에 오르며 역시 전남의 종합 3위를 지키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단체종목에서도 선전이 이어졌다. 화산실고의 배드민턴과 함평고의 펜싱의 선전은 마지막

날 1점이 아쉬운 전남에게 큰 힘이 됐다. 기록면에서도 박철성(삼성전지)이 육상 남자일반부 20km경보에서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유정남(전남연맹)과 정다래(부영여고)는 각각 수영 남자 일반(점영 100m)과 여고부(평영100m·2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다. 육상 김성호(전남체육고)와 사이클 나아름(전남미용고)은 4관왕에 올라 스타선수로 떠올랐다.

전남의 종합 3위에는 개최지 이집트와 연고팀(경찰청, 국군체육부대)의 득점향상, 단체 대진 득점 향상도 있었지만 고교부가 2만2천413점을 획득해 3위를 이루는 선전을 펼친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전남은 이번 대회의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취약종목 경기력 보강과 우수 지도자 중심의 팀 육성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009년 체전을 대비해 타 시·도로 진출한 지역 출신 우수선수 조기 영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취약한 대학부팀에 대한 육성 대책 및 현실적 육성체계 수립을 전남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스턴, WS 진출 불씨

탬파베이와의 5차전 잡아... 2승 3패

미국 프로야구 MLB(메이저리그) '전통의 명가' 보스턴 레드삭스가 7점차를 뒤집는 '가을의 기적'을 일으켰다. 보스턴은 17일(한국시각) 보스턴 퀘벵이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5차전에서 탬파베이 레이스에 8-7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2승 3패를 기록하며 승부를 6차전까지 끌고 갔다.

6차전은 19일 탬파베이의 홈구장인 세인트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필드도 장소를 옮겨 열린다.

18일(토)

- ▲KLPGA 하이트컵 여자프로골프 챔피언십 FR(12:00·SBS골프)
- ▲복싱스페셜 WBA 여자 패더급 세계 타이틀매치(14:30·KBSN SPORTS)
- ▲K리그 <인천:서울>(13:00·KBS1), <경남:포항>(15:00·MBCESP)
- ▲SBS 코리아투어 메리트 솔로로 오픈 3R(15:00·SBS골프)
-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우리은행>(15:50·SBS스포츠)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미들스브로:첼시>(20:30), <풀럼:선더랜드>(23:00·MBCESP)

19일(일)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Utd:웨스트브롬위치>(01:20·MBC-SPN)
- ▲메이저리그 AL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 <보스턴:탬파베이>(05:30·Sports)
- ▲PGA 저스틴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호스피탈 오픈 3R(06:00·SBS스포츠·SBS골프)
- ▲K리그 <서울:대전>(15:00·MBC-SPN)
- ▲여자 프로농구 <금호생명:KB국민은행>(15:50·SBS스포츠)

20일(월)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스토크시티:토트넘>(00:00·MBCESP)
- ▲세리에 A 축구 <AS 로마:인터밀란>(03:30·MBCESP)